

# 論斷

## 국제기구의 살인발생률 통계자료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Problems with the Data on International Homicide Rates and Remedies for Them)

■ 전 돈 수 \*

### I. 서론

일반적으로 범죄학자들은 세계 국가들의 범죄율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범죄통계자료를 국가별로 따로 따로 수집하기보다는 국제기구가 그들의 회원국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범죄학자가 각국의 범죄통계자료를 따로 따로 수집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국제기구의 범죄통계자료를 이용하는 데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범죄학자들이 국가간의 범죄발생율을 비교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주요 국제범죄 통계는 인터폴(Intropol)이 발행하는 「국제범죄통계」(International Crime Statistics)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세계보건통계 연보」(World Health Statistics Annuals) 등이 있다. 이 중 인터폴의 「국제범죄통계」는 각국의 범죄의

유형분류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범죄유형을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살인(murder), 성범죄(sex offences), 절도(theft), 사기(fraud), 위조 지폐제작(counterfeit), 그리고 마약범죄(drug offences) 등으로 넓게 분류하고 있다 (Interpol, 2003). 그러나 이런 인터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범죄분류상의 상이점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강도를 재산범죄(property crimes)로 분류하기도하고 강력범죄(violent crimes)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 나라의 형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살인 이외의 다른 범죄를 국가들끼리 비교하여 연구한 논문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살인에 한정해서만 논의하도록 하겠다.

국제 범죄통계 중에서 살인에 대한 자료가 여러 범죄유형 중에서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 가야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왜냐 하면 한 국가는 살인을 정의(定義)하는데 있어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서 비교적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적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 이다. 그래서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국가간의 살인사건발생률의 차이를 설명하는 노력을 하였다(Bennet과 Lynch, 1990; Huang과 Wellford, 1989; Neapolitan, 1996). 살인 사건발생률이란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 발생건수를 말한다(이하 “살인발생률” 또는 “살인율”이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함). 이와 같이 한 국가에 인구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잠재적인 살인의 대상과 가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 국가의 인구수를 반영하여 살인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살인에 관한 통계자료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서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첫째, 국가간에 심지어는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별로 살인을 분류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일본은 가해자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지만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죽은 경우에 “폭행치사”로 분류한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많은 주들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폭행의 피해자가 죽으면 “살인”으로 분류한다. 둘째, 각국 국민들의 범죄 신고정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가의 국민들은 범죄 신고 정신이 개발도상국의 국민들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은 아프리카나 동남 아시아의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긴급전화

체계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 낮은 범죄 신고률을 보여줄 수 있다. 시민들이 범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경찰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소위 “암수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셋째, 개발도상국들의 경찰은 전문 인력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범죄통계의 수집과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끝으로 나중에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국제기구들 사이에도 조금씩 다른 살인에 대한 정의와 통계수집 절차를 가지고 있다 (Archer와 Gartner, 1984; Interpol, 1995; Kalish, 1988).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과 그 극복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여러 국제기구 들의 살인통계자료 중 어느 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둘째, 각 국가들이 국제기구에 살인통계자료를 연도별로 제대로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셋째, 인터폴의 살인률 자료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살인의 기수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살인미수까지도 살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터폴 자료는 실제보다 과장된 살인률을 나타낸다. 끝으로 한 국가의 살인률을 연도별로 비교했을 경우에 일부 국가들은 특정 해에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살인통계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 때문에 범죄 학자들은 국제기구들의 살인통계 자료를

이용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못된 연구결과를 얻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까지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외국의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문헌연구 이외에도 본 저자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9년 동안의 세계 살인률에 관한 자료를 인터폴과 세계보건 기구로부터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런 분석 내용은 본 논문의 표2, 표3, 그리고 그림1을 통해 논의되어질 것이다. 우선 다음에서는 국제 기구의 살인통계자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 II. 국제기구의 살인통계자료의 종류

세계 각국의 살인률에 대한 자료 출처는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인터폴(Interpol)이 발생 하는 「국제 범죄통계」(International Crime Statistics), 유엔(UN)의 산하 기관인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세계보건 통계 연감」(World Health Statistics Annuals), 유엔 통계국의 「인구통계 연보」(Demographic Yearbook), 유엔 국제 범죄예방센터(The Center for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의 「범죄동향과 형사 사법체계의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Crime Survey of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 of Criminal Justice), 그리고 마지막으로 Archer와 Gartner의 “비교범죄 자료”(Comparative Crime Data File) 등이 있다(Chon, 2002). 그러나 Archer 와 Gartner의 자료는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자료 는 아니다. 이 다섯 가지 자료들을 아래에서 차례대로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첫 번째의 인터폴의 자료는 1950년부터 1992년까지는 매 2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1993년부터는 매년 한 차례 씩 범죄통계를 발행하고 있다. 인터폴 자료는 회원국의 경찰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경찰통계이다 (Interpol, 2003). 1995년의 인터폴 자료를 예로 들면 총 103개 나라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인터폴은 “murder” 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후에 논의할 세계보건기구의 자료가 살인을 “homicide”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murder”는 고의로 저지른 살인을 주로 일컫는 말이며, “homicide”는 정당방위와 과실로 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까지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그러나 위 두 개의 살인에 대한 다른 정의를 각국 경찰이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고 구분하느냐 하는 것은 알기 어렵다. 어쨌든 인터폴은 살인(murder)을 “상황을 불문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목적으로 저지른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다(any act

performed with the purpose of taking human life, in whatever circumstances). 여기 인터폴의 해석에 따르면 살인의 개념에는 낙태는 제외되고 영아살해는 포함된다 (Interpol, 1995).

두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는 회원국들로부터 연령과 성별에 따른 살인발생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29개 국가의 통계청에 설문지를 보내서 살인을 포함한 각종 공중보건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한다. 세계보건기구는 1996년까지는 책의 형식으로 발간하였다가, 1997년부터는 온라인으로만 검색할 수 있도록 바꾸어 놓았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그러나 책이나 온라인 형식 사이에 내용상에 별다른 차이는 없다. 세계보건기구의 살인에 관한 자료는 인터폴과는 달리 경찰통계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는 사망신고서에 기초를 둔 자료이다.(Zvekic, 1999) 많은 나라는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혹은 간호사의 사망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망원인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서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United Nations, 1997). 그렇기 때문에 인터폴과는 달리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는 실제 사망한 사람의 시체수를 계산한 것이다.

세 번째로 유엔 통계국의 “인구통계 연보”는 출생과 사망과 같은 기초 인구동태에 관한 자료를 담고 있다. 이 자료는 살인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유엔의 “인구통계

연보”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자료를 얻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나 유엔 통계국의 자료 모두 살인(homicide)을 타인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다만 유엔 통계국은 여기서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은 제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는 고의적인 살인과 과실치사를 구별하지는 않고 있다(Kalish, 1988).

네 번째로 유엔 산하의 국제범죄 예방센터가 발행하는 「범죄동향과 형사사법체계의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Crime Survey of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 of Criminal Justice)가 있다. 이 자료는 살인기수와 살인미수를 구별하고 있다 (Neapolitan, 1996). 유엔이 처음 발행한 보고서에는 1970부터 1980까지의 11년간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발행된 여섯 번째 보고서에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각국의 살인통계 자료가 들어가 있다.

표1. 주요 국제기구 살인률 자료들에 대한 비교

구 분	인터폴의 「국제범죄통계」	유엔의 「범죄동향과 형사사법체계의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세계보건기구의 「세계보건통계연감」
출 처	경찰기관	경찰기관	통계청
정 의	살인(murder)	고의, 살인기수	살인(homicide)
출판기간	1992년까지 2년마다 1993년부터	부정기적 최근자료 : 여섯 번째 설문(1995년부터 1997년까지 포함)	매년
포함연도	1950-2002	1970-1997	1948-2002 *1997년부터는 온라인으로만 검색가능.
포 함 된	125	76	92
국가 수	(1994-1995년 자료의 경우)	(1994-1997년 자료의 경우)	(1990-1998년 자료의 경우)

마지막으로 Archer와 Gartner의 “비교범죄자료”(Comparative Crime Data File)가 있다. 이 자료는 1900년부터 1977년까지의 110개 국가들의 살인통계자료를 담고 있다(Huang과 Wellford, 1989). 이 자료는 78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의 살인발생률 추이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자료가 1977년까지밖에 없어 현재 범죄학자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로서 사용 가능한 주요 세계 살인통계자료는 인터폴과 세계보건기구의 자료, 그리고 유엔의 “범죄동향과 형사사법체계의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III. 국제기구의 살인발생률자료에 대한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

우선 먼저 현재 범죄학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폴과 세계보건 기구의 살인률 자료들에 대한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의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1. 타당성

타당성이란 사용된 도구(변수)가 원래 목표했던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의 타당성 문제는 위의 두 가지 국제기구의 자료들이 각국의 실제 살인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 학자들은 세계 각국의 범죄 발생률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타당성과 관련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범죄학자들은 국가들의 각 범죄유형에 대한 분류기준에 있어서의 차이가 타당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Gertz와 Myers, 1992; Huang과 Wellford, 1989; Kalish, 1988). 한 예로 Kalish(1988)는 국가간의 살인률을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살인이란 개념 정의가 나라마다 유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인에 대한 개념정의의 차이는 여러 국제기구 사이에 발생하는 것과 한 국제기구 자료 안에서의 회원국가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 국제기구마다 살인에 대한 정의를 조금씩 달리 한다. 인터폴과 세계보건기구의 살인에 대한 각기 다른 개념규정이 위 두 국제기구들의 살인 발생률 통계의 차이의 한 원인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인터폴과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같은 나라의 같은 해의 살인발생률이 각기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Neapolitan, 1996) 인터폴 자료는 경찰통계로서 살인을 법적인 측면에서 정의한다. 반면 세계보건기구는 기초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인

정의이다. 본 저자가 수집한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9년간의 인터폴 자료의 평균 살인률이 9.95인데 비하여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는 6.77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위의 두 기구간의 살인에 대한 다른 정의가 그들의 살인발생률 차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한편 한 국제기구자료 안에서도 각국은 살인을 조금씩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국제기구는 살인에 대한 개념정의를 만들어 놓고 각국에게 그에 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회원국들은 살인을 개념정의 하는데 여전히 많은 자유재량을 가지고 있다(Vigderhous, 1978).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형법이 국제기구의 기준과 다르게 살인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국가가 국제기구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인률을 다시 환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국제기구의 기준과 상관 없이 자신들의 통계를 그대로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각 나라가 어떻게 살인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즉 우리는 각 나라가 낙태, 영아살해, 전쟁기간 동안에 발생한 살인, 그리고 경찰의 직무직행 중에 일어나는 사망사건 등을 살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이 발행하는 「유니폼 범죄보고서」(Uniform Crime Reports)는 살인미수(attempted murder)를 살인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대신에 살인

## 2. 신뢰성

한편 신뢰성(reliability)은 측정이 안정적이고 일관적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어떤 것을 측정하는데 쓰인 도구가 정확한 것인가의 문제인 타당성과는 다르다(Maxfield and Babbie, 2000). 따라서 살인통계에 관한 자료들이 신뢰성이 높다고 하여서 그것이 반드시 실제 정확한 살인률을 나타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제범죄비교연구에 있어서 신뢰성은 각국의 형사사법체계의 차이, 통계수집과 분석에 있어서의 착오, 시민들의 범죄신고 행태의 차이, 그리고 범죄기록 관리능력의 차이와 관계가 있다(Archer와 Gartner, 1984; Clinard와 Abbott, 1973; Gertz와 Myers, 1992; Huang과 Wellford, 1989; Interpol, 1995; Kalish, 1988; Neuman과 Berger, 1988; Skogan, 1984; Vigderhous, 1978; Wilkins, 1980; Zvekcic, 1999). 신뢰성도 타당성을 논의했을 때와 같이 각 국제기구 자료간의 신뢰성 문제와 한 국제기구자료 출처 안에서의 신뢰성 문제로 양분해서 논의할 수 있다.

우선 자료 출처간의 신뢰성은 각 국제기구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분석방법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자료 출처간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인터폴과 세계보건기구의 살인발생률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각 국가별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동안의 살인률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렇게 평균값을 구한

미수를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중폭행은 범인이 총이나 칼과 같이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경우를 주로 일컫는다. 따라서 범인이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단순폭행 (simple assault)과는 구별된다. 이처럼 미국 연방 수사국이 살인 미수를 따로 구별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가해자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일본은 가해자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로 분류한다. 이것은 미국 연방수사국이 폭행의 피해자가 죽으면 살인으로 분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살인에 대한 개념 규정의 차이가 일본의 살인률이 미국보다 낮은 여러 이유들 중의 하나일 수 있다(Kalish, 1988).

심지어는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마다 살인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경우도 있다. 미국의 많은 주(州)들은 “일년 하루 법칙”(year-and-a day rule)을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폭행의 피해자가 1년하고 하루 안에 사망한 경우에만 가해자가 살인죄로 처벌받는다는 원칙이다. 바꾸어 말하면 폭행의 피해자가 1년하고 하루가 지난 이후에 죽는다면 가해자는 살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주들은 그 “일년 하루 법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Rogers v. Tennessee사건 참조, 2001).

이유에 대해서는 후에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한 인터폴과 세계보건기구의 살인발생률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는  $r = .82$ 이다. 이렇게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로 볼 때 위 두 자료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 출처 안에서의 신뢰성 문제는 한 국제기구 안에 있는 여러 회원국들의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한 자료출처 안에서의 신뢰성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는 사망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의사나 혹은 간호사에 의한 사망진단서와 목격자의 진술을 첨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의사나 간호사는 사망원인을 목격자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경우도 많다(United Nations, 1997). 여기서 문제는 목격자가 사망원인을 의사나 간호사에게 진술하는데 있어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다. 둘째, 국제기구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나라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 또한 그런 국가들의 통계 자료는 다소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셋째, 살인은 자주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기록 착오가 전체 살인률의 연구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Messner, 1992). 또한 한 국가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해의 살인발생률이 인접 연도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변동하는 것은 그 국가자료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 이것은 그 나라가 범죄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필요한 자원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Vigderhous, 1978).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에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각국에서 일어나는 법의 개정, 형사사법제도의 변화, 그리고 범죄통계 수집방법의 변화는 살인률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Christiansen, 1967).

Bennet과 Lynch(1990)는 신뢰성의 문제는 연구 목적이 여러 국가들끼리의 살인발생률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데 있다면, 어떤 자료를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분석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구의 목적이 어떤 독립변인(들)과 살인률과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분석적(analytical) 연구라면 어떤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Bennet과 Lynch(1990)의 주장과는 달리, Neapolitan(1998)은 연구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의 정도는 상당부분 어느 통계자료를 쓰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연구에 있어서 통계자료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IV. 국제기구 살인통계자료의 문제점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살인률 통계자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그 문제들은 통계자료의 선택의 문제, 과장된 인터폴의 살인통계, 살인률의 불안정성, 그리고 각국의 불규칙한 통계보고 등이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통계자료 선택의 문제

앞에서 논의한 통계자료들 중에서 어느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자료에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 우선 유엔의 「범죄동향과 형사사법체계의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는 그 통계에 포함된 나라의 숫자가 인터폴이나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비해서 적다. 최근에 발표된 여섯 번째 조사(1995년~1997년)는 52개의 국가만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유엔은 그 자료를 부정기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의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현재 국제비교 범죄학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자료는 앞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인터폴과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자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터폴 자료는 비교적 많은 나라를 포함하고 있다. 1995년 자료를 예를 들면 103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포함된 나라는 인터폴의 자료보다 대체적으로 적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는 인터폴의 통계보다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는 실제 시체의 숫자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이다(Kalish, 1988; Lee와 Bankston, 1999; Neapolitan, 1994). 이와는 달리 인터폴 자료는 경찰에 살인으로 신고된 사건이나 경찰이 직접 적발한 것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찰통계에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많은 범죄가 누락되어 있다(Kalish, 1988).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은 인터폴보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Gartner, 1992; Lee와 Bankston, 1999). 그러나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도 문제는 있다. 만약 목격자가 사망원인을 착오나 혹은 고의로 잘못 진술한다면, 이 자료는 정확하지 못하다.

### 2. 과장된 인터폴의 살인률 통계

인터폴 자료에는 많은 나라들이 피해자가 죽은 살인기수 뿐만 아니라 죽지 않은 살인미수(attempted murder)도 살인에 함께 포함시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살인미수까지 살인에 포함시킨 나라는 실제보다 과장된 살인률을 보이게 된다.

표2. 세계보건기구와 조정 전후의 인터폴 살인률과의 연도별 상관관계

연도	평균 (M) 과 표준편차 (S.D.)						피어슨 상관관계수		
	세계보건 기구(A)		원래 인터폴 자료(B)		재조정된 인터폴 자료(C)		A & B	A & C	N <sup>1)</sup>
	M <sup>2)</sup>	S.D. <sup>3)</sup>	M	S.D.	M	S.D.			
1990	6.15	10.81	4.41	3.45	2.36	1.87	.26	.76*	24
1991	6.80	13.48	7.94	14.37	5.79	14.09	.97*	.99*	30
1992	7.11	13.30	6.35	5.89	3.41	3.68	.50*	.94*	24
1993	7.21	13.23	6.90	6.77	3.93	4.50	.59*	.93*	28
1994	7.68	12.96	7.30	7.07	4.93	6.00	.75*	.85*	31
1995	5.52	6.90	5.18	4.75	3.55	4.25	.90*	.97*	34
1996	5.05	6.28	5.96	5.03	3.38	3.29	.58*	.98*	29
1997	5.47	6.19	7.34	4.84	5.00	4.64	.88*	.97*	20
1998	7.05	5.91	7.86	4.85	6.10	4.26	.95*	.98*	8
합계 <sup>4)</sup>	6.77	11.49	9.95	12.7	6.43	10.	.82	.82*	64

\* p < .05

본 연구는 인터폴에서 90개와 세계 보건기구에서 92개 국가의 9년의 동안(1990~1998)의 살인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전체 기간 동안 인터폴 자료와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포함된 국가들은 64개 국가가 겹치고 있다. 두 국제기구간의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64개의 각 국가별로 9년 동안의 평균 살인률을 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국제기구별로 평균 살인률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 자료는 평균 살인률이 6.77이다(표2의 제일 아랫줄 “합계”의 각 “M”란 참조). 그러나 살인미수가 여러 나라에 포함된 원래 인터폴 자료의 평균 살인률은 9.95이다.

이번에는 살인미수를 빼서 조정된 “순수한” 인터폴 살인률을 환산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6.43이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서 나온 6.77과 많이 가까워진 것이다. 이것을 보면 인터폴 자료가 실제 살인률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1) N 여기서 “N”은 인터폴과 세계보건기구자료에 포함된 국가들 중 서로 겹치는 국가의 수를 말한다. 이것은 겹치는 국가끼리 서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2) M 여기서 “M”은 각 해의 평균 살인발생률을 가리킨다.  
 3) S.D. S.D.는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말한다.  
 4) 여기서 합계라고 하는 것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동안의 각 국가별로 살인률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각 국제기구별로 평균값을 구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표의 각 행의 값을 산술적으로 합친 후에 9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한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는 9년 동안의 평균 살인률을 세계보건기구와 살인미수까지 모두 포함시킨 원래 인터폴 자료와의 일대일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자료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계수가  $r = .82$ 였다. 이와는 달리 세계보건기구와 살인미수를 제외시킨 순수한 인터폴 살인률과의 상관관계 계수는  $r = .92$ 로서 더 높아 졌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상관관계 계수는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보였다. 이것은 살인미수를 빼서 조정된 인터폴 살인률이 보다 정확한 통계 자료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있다. 어떤 나라들은 전체 살인 통계치 중에서 어느 정도의 살인 미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1995년의 인터폴 자료를 예로 들면 총103개 국가 중에서 61개 국가만이 전체살인 사건 중에 어느 정도(%)의 살인미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순수한 살인발생률을 계산하기가 어려운 나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만약 이런 나라들을 제외한다면 연구에 포함되는 나라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 3. 한 국가 살인률의 불안정성

한 국가에 있어서 전쟁이나 내란과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연도에 살인률이 급증하거나 급락하였다면, 그 기록상의 실수가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Neapolitan, 1998).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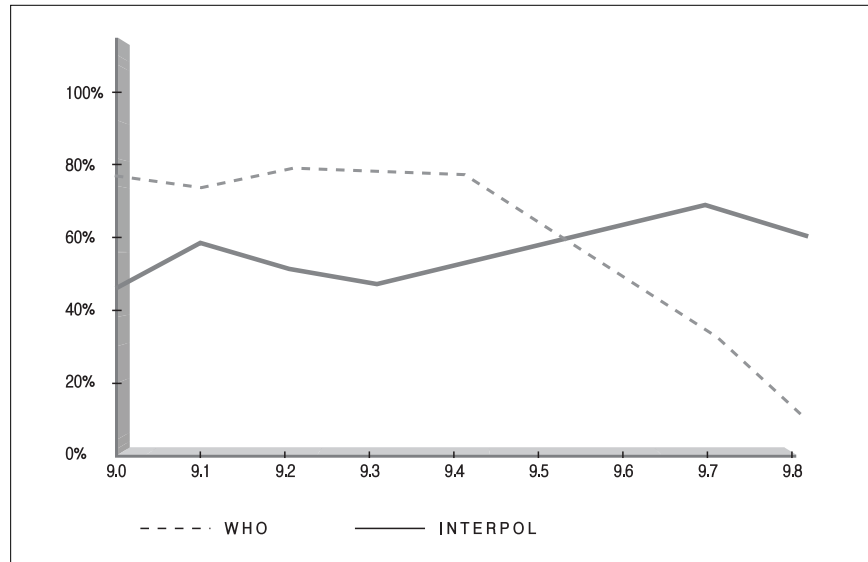
예로 Armenia는 1991년에 살인사건발생률이 6.9이었으나 1992년에 25.3으로 급증하였다. 그 살인률은 1993년에 다시 7.7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부주의로 인한 기록상의 실수로 여겨진다. 그래서 한 국가에 있어서 연도별로 자료의 검토 없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 4 각국의 불규칙한 통계보고

일부 나라들은 특정 연도에 인터폴이나 세계보건기구에 자국의 살인통계를 보고하지 않았다. 국제기구들은 자신의 회원국들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통계 자료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은 각국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통계수집과 분석능력의 부족, 국가의 위신, 그리고 내란과 혁명 같은 불안정한 국내 정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통계보고를 제때에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터폴과 세계보건기구 자료의 국가들의 보고률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90년부터 1998년 사이의 9년 동안에 조사대상 90개의 인터폴 회원국은 평균 5.08년을 보고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92개의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5.37년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위 두 국제기구의 자료들은 보고률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1】은 본 연구에 포함된 90개의 인터폴과 92개의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들의 1990년부터 1998년 사이의 연도별 보고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전체 회원국가들 중에 몇 퍼센트의 국가들이 각각의 국제기구에 보고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포함된 국가들의 연도별 보고률은 인터폴 국가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세계보건기구의 회원국들은 비교적 보고를 잘하였다. 그 기간 동안 전체 92개 국가 중에서 71% 에서 78%가 세계보건기구에 살인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 보고률은 1995년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1995년에는 65%의 국가만이 보고하였고, 96년, 97년, 그리고 98년에는 각각 49%, 35%, 그리고 겨우 13%의 국가만이 보고하였다. 이것은 세계보건 기구의 회원국들이 살인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는 회원국들의 늦장 보고로 인해서 통계 자료가 즉시로 최신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sup>5)</sup>

세계보건기구와는 정반대로 인터폴 (Interpol) 회원국들은 90년대 초반에는 낮은 보고률을 보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비교적 높은 보고률을 보이고 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본 연구에 포함된 인터폴 90개 회원국가들 중에서 적게는 43%에서 많게는 56% 가량이 인터폴에 살인통계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1995년부터는 보고률이 오히려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는 60%, 96년에는 64%, 97년에 72%, 그리고 98년에는 67%정도였다.



【그림1】 인터폴(Interpol)과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의 연도별 보고률(%)

5) 본 자료를 수집한 2001년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V. 국제기구 살인발생률 통계자료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

국제기구의 살인률 통계자료에는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살인률을 비교하여 연구하려는 범죄학자들은 원래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여기서는 전에 논의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 1. 두 국제기구자료의 비교분석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 보건 기구의 자료가 세계 각국의 살인률을 측정 하는데 인터폴보다 좀 더 좋은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세계보건 기구의 자료는 실제 시체의 숫자를 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에 어느 한 자료만을 이용하기 보다는 두 자료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즉 인터폴과 세계 보건 기구의 자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별도의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한 가지 자료에만 의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 할 수 있다(Chon, 2002).

### 2. 순수한 살인률의 계산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인터폴 자료에 포함된 일부 국가들은 살인에 살인미수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인터폴 자료를 연구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인미수를 빼 순수한 살인률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Huang과 Wellford, 1989; Neapolitan, 1994, 1998). 그러나 문제는 어떤 나라들은 전체 살인 통계치 중에서 얼마만큼의 살인 미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1995년의 인터폴 자료를 예로 들면 총103개 국가 중에서 61개 국가만이 전체살인사건 중에 몇 퍼센트 정도의 살인미수가 포함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순수한 살인발생률을 계산 해내기가 어려운 나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만약 이런 나라들을 모두 제외시킨다면 연구에 포함되는 나라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 3. 비정상적인 살인통계자료 조정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 나라의 통계 자료를 연도별로 검토했을 경우에 급격한 변동은 그 나라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범죄학자는 연구에 본격적으로 들어 가기 이전에 원래자료를 우선 눈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한 나라의 자료가 인접연도와 비교하여 살인률이 급격

치안논단 6

하게 변동하였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해진 규칙은 따로 없으나 대략 한 해의 살인률이 인접연도와 비교해서 3배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만약 그런 급격한 살인률의 변동을 발견하면 그 해의 통계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도의 자료만으로 평균 살인발생률을 구하면 된다.

본 저자는 1990년부터 1998년 사이의 각국의 살인발생률 자료 중에서 급격하게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를 일일이 눈으로 검사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논의한 방식대로 주변 연도와 비교하여 급격하게 변동된 해의 자료를 뺀 후에 다시 살인발생률을 계산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의 92개 국가들의 원래 통계자료 중에서 13개 국가들의 것을 수정하였다. 표3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살인률을 수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Azerbaijan의 경우, 1992년도의 살인률을 빼고 나머지 해의 자료만으로 9년 기간의 평균살인률을 구한 결과 23.5에서 6.7로 16.9정도나 감소하였다. Azerbaijan 이외에도 Armenia와 Tajikistan은 이와 같은 수정을 통해서 평균 살인률이 감소하였다. 반면 표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머지 10개의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의 살인률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런 변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보건기구 13개 회원국들의 평균 살인률은 모두 합쳐서 12.4가 줄어들어 든 셈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폴 자료도 Argentina, Belgium, Honduras, 그리고 Swaziland 등의 4개 국가들의 통계자료를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Argentina의 경우 1995년에 평균 살인률이 3.7이었으나, 1996년에 38.8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 3.4로 다시 줄었다. Honduras가 조정 전에 89.8에서 조정 후에 27.4로 62.5나 변동하여 4개 국가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4개 국가의 살인률은 합쳐서 81.0정도나 감소하였다.

표3. 세계보건기구(WHO)와 인터폴(Interpol) 자료의 수정후의 평균 살인률의 변화

국제기구자료	국 가 명	원래 살인률	수정후 살인률	수정후 살인률 변화
세계보건기구	Antigua and Barbuda	5.57	6.36	+0.79
	Armenia	7.19	5.30	-1.89
	Azerbaijan	23.48	6.56	-16.92
	Belize	1.23	2.05	+0.82
	Bermuda	3.40	4.25	+0.85
	Bulgaria	4.00	4.37	+0.37
	Dominica	2.19	4.80	+2.61
	Iceland	.63	.95	+0.32
	Luxembourg	1.40	1.56	+0.16
	Malta	1.02	1.13	+0.11
	Norway	1.02	1.16	+0.14
	Qatar	.85	1.13	+0.28
	Tajikistan	5.00	2.30	-2.70
합계	—	—	-12.40	
인터폴	Argentina	9.71	2.45	-7.26
	Belgium	3.30	1.57	-1.73
	Honduras	89.82	27.36	-62.46
	Swaziland	17.21	7.65	-9.56
	합계	—	—	-81.01

4. 여러 해의 평균 살인률 사용

앞에서 지적한 각국의 불규칙한 통계보고 때문에 어느 한 해의 통계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Messner, 1992). 즉 통계분석의 대상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Messner, 1989; Neapolitan, 1998).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느 한 해가 아니라 수년 동안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살인률 변동의 문제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Huang과 Wellford, 1989; Messner, 1992). 또한 어느 한 해의 자료만 이용하게 되면, 그 해에 국제기구에 보고하지 않은 나라를 연구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어 분석대상 국가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 해 동안의 평균값을 이용하면 한 나라가 분석대상 기간 동안 어느 한 해라도 보고 하였다면 그 나라를 연구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특정한 해보다는 여러 해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Braithwaite와 Braithwaite, 1989; Lee와 Bankston, 1999; Neapolitan, 1994).

어느 한 해의 자료 대신 평균값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평균값을 구하되 그 기간 안에 자료가 없는 나라는 처음 의도한 기간 밖에 있는 자료를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한 예로 Kick과 LaFree (1985)는 1968년 부터 1972년까지 5년 동안의 살인률의 평균값을 사용하려고 계획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간 안에 통계 자료가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최초로 의도한 기간 밖에서 자료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사용한 가장 오랜 통계 자료는 1967년 이고 가장 최근의 것은 1974년이였다.

또 다른 방법은 고정된 기간 동안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전체 기간 중에 일부 연도의 자료가 누락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있는 해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다 (Messner, 1992). 예를 들어 만약 연구자가 5년 기간을 사용하려고 계획했어도 한 국가에 있어서 그 중 일부 연도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면, 대신 4년, 3년, 2년, 그리고 심지어는 1년의 자료만을 가지고 평균값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나라에 따라서

5년에서 1년의 평균값을 나타나게 된다.

Messner(1992)는 이렇게 평균값을 이용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검증하였다. 인터폴과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는 전체 5년과 그 중 일부 기간의 평균 살인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Messner(1992)는 그들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 $r = .96$ )를 검증하였다. 그는 이 결과를 토대로 최초로 의도한 기간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 기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값을 내는 것은 연구결과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평균값을 이용하는 것은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국제기구에 자주 보고하는 나라만이 연구대상에 많이 포함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자연적으로 제외되기 쉽기 때문이다. Messner (1992)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 각 나라의 보고수준을 낮음, 보통, 높음, 그리고 아주 높음 등으로 구분하였다. 보고 수준이 보통에서부터 아주 높음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정해진 전체 3년 기간과 그 중 일부 기간인 2년이나 1년의 살인률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비교적 국제기구에 잘 보고하는 나라들은 의도한 기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포함시켜도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고 수준이 낮은 나라의 자료는 전체 3년과 그 중 일부인 2년이나 1년의 평균값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 따라서 낮은 보고률을 보인 나라의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다소

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범죄학자가 보고율이 낮은 나라가 많이 포함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각 나라의 보고율을 새로운 변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Messner, 1992). 예를 들어 한 연구가 9년 기간 동안의 평균 살인률을 사용한다면, 그 9년 기간 중에 각 나라가 보고한 연도수를 새로운 변수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였을 때 만약 그 변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보고율이 전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범죄학자가 국가간 살인률을 비교연구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할 국제기구 통계자료의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우선 각 국가들은 살인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개념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연구 학자는 국제기구 통계자료의 타당성이 그리 높지 못하다는 점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또한 국가마다 살인통계자료의 수집방법과 능력의 차이, 국민들의 범죄 신고정신의 상이, 그리고 급격한 국내 정세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국제 살인률 통계자료의 신뢰성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문제

들은 살인통계자료의 선택, 과장된 인터폴의 살인률, 살인률의 불안정성, 그리고 각국의 불규칙한 통계보고 등이였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주요 살인통계는 인터폴과 세계보건 기구의 자료가 있다. 그러나 두 자료 모두 나름대로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을 사용하기보다는 두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별도의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비교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둘째, 인터폴 회원국들은 살인미수까지 살인에 포함 시킨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범죄학자는 연구에 앞서 살인미수를 뺀 순수한 살인률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나라들은 살인률에 어느 정도의 살인미수가 포함 되었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연도별로 각국의 살인률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런 나라들이 살인률을 기록하는데 있어 착오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범죄학자는 연구에 앞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급격하게 변동한 해의 살인률을 연구에서 제외시켜고 나머지 해의 자료만으로 평균값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하다. 끝으로 상당수 국가들이 제대로 국제기구에 보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보고 하지 않는 나라들의 자료는 그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 또한 누락된 자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연구에 포함되는 나라의 숫자가 적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해의 통계 자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자료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계 살인률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제시한 극복방안을 토대로 해서 기존의 통계자료를 다듬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극복방안들이 앞에서 논의한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범죄 학자들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좋은 극복방안들을 연구해야 한다.

### 참고문헌

Archer, Dane and Rosemary Gartner. 1984. "Violence and Crime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Bennett, Richard R. and James P. Lynch. 1990. "Does a difference make a difference? Comparing cross-national crime indicators." *Criminology* 28(1): 153-228.

Braithwaite, John and Valerie Braithwaite. 1980. "The effects of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democracy on homicide: A cross-national comparison."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 45-53.

Chon, Don Soo.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Homicide Rates and Medical Care." New York: LFB Scholarly Publishing LLC.

Christiansen, K. O. 1967. "The Post-War Trends of Crime in Selected European Countries." Copenhagen, Denmark: Kriminalistiske Institute.

Clinard, Marshall B. and Daniel Abbott. 1973. "Crime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NY: John Wiley and Sons.

Gartner, R. 1992. "The victims of homicide: A temporal and cross-national comparis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92-106.

Gertz, Marc G. and Laura B. Myers. 1992. "Impediments to cross-national research: Problem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16: 57-65.

Huang, Wilson W. S. and Charles Wellford. 1989. "Assessing indicators of crime among international crime data series." *CJPR* 30: 28-48.

Interpol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1995. "International Crime Statistics." France: Saint-Cloud.

\_\_\_\_\_. 2003. "International Crime Statistics."  
<http://www.interpol.int/public/publication/sci/default.asp>

Kalish, Carol B. 1988. "International Crime Rat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Kick, Edward L. and Gary D. LaFree. 1985. "Development and the Social Context of Murder and Theft." *Comparative Social Research* 8: 37-58.

LaFree, Gary and Edward Kick. 1983. "Cross-National Effects of Development, Distributional and Demographic Variables on Crime."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Lee, Matthew R. and William Bankston. 1999. "Political structure, economic inequality, and homicide: A cross-national analysis." *Deviant Behavior: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9: 27-55.

Maxfield, Michael G. and Earl Babbie. 2000. "Research Methods." Belmont, Cal.:Wadsworth/Thomson Learning.

Messner, Steven F. 1989. "Economic discrimination and societal homicide rates: Further evidence on the cost of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597-611.

\_\_\_\_\_ 1992. "Exploring the consequences of erratic data reportingerratic data reporting for cross-national research on homicid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8(2): 155-173.

Neapolitan, Jerome L. 1994. "Cross-national variation in homicide: The case of Latin America."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4: 4-22.

\_\_\_\_\_ 1996. "Cross-national crime data: Some unaddressed problems." *Journal of Crime & Justice* 19 (1): 95-112.

\_\_\_\_\_ 1997. "Homicides in developing nations: Result of research using a large and representative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1(4): 358-374.

\_\_\_\_\_ 1998. "Cross-national variation in homicides: Is race a factor?" *Criminology* 36(1): 139-154.

Neuman, J. and R. Berger. 1988. "Competing perspectives on cross-national crime: An evaluation of theory and evidence." *The Sociological Quarterly* 29: 281-313.

Rogers v. Tennessee. 2001. 532 U.S. Case No 99-6218 (decided May 14, 2001).

Skogan, W. G. 1984. "Reporting crimes to the police: The status of world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Crime Delinquency* 21: 113-137.

United Nations. 1994. "The Fourth United Nations Survey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Vienna, Austria: United Nations Office at Vienna.

\_\_\_\_\_ 1997. "Demographic Yearbook." Statistical Office.

\_\_\_\_\_ 2000. "Questionnaire for the Sixth United Nations Survey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Covering the Period 1995-1997."  
<http://www.uncjin.org/statistics/wcts/wcts6/que.pdf>

Vigderhous, Gideon. 1978. "Methodological problems confrontingcross-cultural criminological research using official data." *Human Relations* 31: 229-247.

Wilkins, Leslie T. 1980. *World Crime: To Measure or Not to Measure?* In G. R. Newman (eds.), *Crime and Deviance*. Beverly Hill: Sage Publications.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6, 2000. "World Health Statistics Annual." Geneva, Zvekic, Ugljesa. 1999. "Weltanschauung of crime: Revisite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9: 56-68.

## 국제기구의 살인발생률 통계자료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전 돈수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범죄학 박사)

본 연구는 범죄학자가 국가간 살인률을 비교연구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기구 통계자료의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선 각 국가들은 살인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개념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연구학자는 국제기구 통계자료의 타당성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또한 국가마다 살인통계의 수집 방법과 능력의 차이, 국민들의 범죄신고 정신의 상이, 그리고 급격한 국내정세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국제 살인률 통계자료의 신뢰성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문제들은 국제통계자료의 선택, 각국의 불규칙한 보고행태, 과장된 인터폴의 살인률, 그리고 살인률의 불안정성 등이다. 첫째,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요 살인통계는 인터폴과 세계보건기구의 자료가 있다. 그러나 두 자료 모두 나름대로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사용하기보다는 두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별도의 분석을 하여 비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둘째, 상당수의 국가가 정기적으로 국제기구에 보고하지 않는다. 이것은 규칙적으로 보고 하지 않는 나라의 자료는 그 신뢰성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로 인해 누락된 자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되는 나라의 숫자가 적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해의 통계자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자료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인터폴 회원국들은 살인미수까지 살인에 포함시킨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범죄학자는 연구 분석에 앞서 살인미수를 제외시킨 순수한 살인률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나라들은 살인률에 어느 정도의 살인미수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연도별로 각국의 살인률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런 나라들이 살인률을 기록하는데 있어 착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자는 연구에 앞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해의 살인률을 연구에서 제외시켜서 나머지 연도의 자료만으로 평균값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살인률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범죄학자들은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제시한 극복방안을 토대로 해서 통계자료를 다듬어서 사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범죄학자들은 보다 나은 국제 살인률 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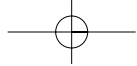
## Problems with the Data on International Homicide Rates and Remedies for Them

Don Soo Chon

Assistant Professor of Police Administration, Kaya University

The current paper discusses the problems with the data on international homicide rates and remedies for them. First of all,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 of homicide among nations in the world. Thus, criminologists must recognize that the validity of international homicide rates is limited. Also, an individual nation has different capability of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data, and reporting behavior of a citizen in a nation differs from a nation to the next.

The issues on which the current study has focused are the choice of data for cross-national study, erratic data reporting, exaggerated Interpol homicide rates, and extreme fluctuation of homicide rates. First, two major sources of international homicide rates are Interpol's "International Crime Statistics"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WHO)'s "World Health Statistics Annuals." However, the two data sources have their own limitations. Thus, one needs to employ the two different data sets, one for Interpol data and the other for WHO, to compare the results from them. Second, there are quite a few nations which have not reported their homicide rates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certain years. It weakens reliability of the data from those under-reporting nations. Also, one is forced to lose the number of nations included in an analysis. To overcome those limitations, a researcher needs to employ mean homicide rates for multiple years, instead of a single year. Third, Interpol homicide rates for many nations include attempted murders. It produces exaggerated homicide rates for those countries. Therefore, future studies must calculate "pure" homicide rates by excluding attempted murder. Still, there is a problem because some nations have not reported what portion constitutes attempted murder among total homicide rates. Finally, some nations show an extreme fluctuation of homicide rates over certain period of years. It may



치안논단 6

suggest recording error for those nations. Thus, one need to exclude the homicide rates in certain years which show extreme fluctuation in comparison with those of other years.

Conclusively, cross-national researchers must keep in mind that there are limitations with the data on international homicide rates. Thus, one must excercise a caution and employ some remed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Furthermore, future studies should make an effort to develop refined international homicide data.

